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1974

분류번호	791.72JA
등록번호	7752

104

1

색 인 목 록

분류번호	등록번호	생산과	생산년도	필름번호		화일 번호	후래임번호		
				주제	번호		시작		끝
79L72JA 1974	7752	동북야과	1974	P	-001401	0001	-	0019	

기능명칭 :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1974

일련번호	내 용	페이지

외교통상부 보존문서

분류번호	791.72JA 1974	등록번호	7752	보존기간	영구
기능명칭	재일북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1974				
생산과	동북아1과	생산년도	1974		
				M/F	
				No.	

3

외 무 부

총 별 : _____
 번 호 : OSW - 0515 일 시 : 151530
 수 신 : 장 환 참 조 (사본) : _____
 발 설 : 루오오사학총연사

착신전보
원 본

1. 5. 15. 10:30경 "서중경제를 구하는회" 등 7개 단체대표 "문답견거지"의 12명이 아태와같은 질문을 당국에 제출, 5. 22.까지 성의있는 회신을 문서로 제출것을 요청하고 갔음.

가. 서준식 (1971. 4. 간첩첩의로 체포, 현재 광주 교도소 복역중)에 대한 고문, 학대행위를 중지하는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 하겠는가.

나. 동인에대한 학대행위의 책임소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규명하겠는가.

다. 동인에 대한 면회, 카입금통 지급, 서신의 자유왕태, 통분한 의투적 권리등의 실현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보증 하겠는가.

2. 서준식에 대한 고문, 학대사실은 5. 5. 한국을 방문한바있는 사회당 소속 함의원 "니시무타 강이치"가 서준식을 광주 교도소에서 면회, 서준식으로부터 신랄 고문과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사가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바 있음. (영인)

4
 1. 김각
 2. 兪州局나 兪州

장관실	의전실	국경국	외연원	청와대	경거원	문교부	포달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담당</td> <td>주무</td> <td>과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d></td> </tr> </table>	담당	주무	과장	[인]	[인]	
담당	주무	과장												
[인]	[인]													
차관실	아주국	방교국	대사	총리실	내무부	농수부	노동청							
참차보	미주국	정문국	총비	국회	재무부	상공부	수산업청							
경차보	구아국	인사국		중앙	법무부	보사부	교도청							
기획실	통상국	총무과			국방부	문공부	건설부							

복 외 무 부

종 별 : _____
 번 호 : J A W -05300 일 시 : 161510
 수 신 : 장 관 참 조 (사본) : _____
 발 신 : 주 일 대사

착 신 전 보

원 4 본

재민노조위원장

1. 금 16일 13:15 - 14:00 당지 서승명제를 구제하는 회담과하여 15명 (여자5명 포함, 대표 : 밋고 맥알 코교수) 이 방관여 문역와 당관정문에서 서승명제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소망서를 낭독하고 해산하였음.
2. 당지 경찰정보에 회하면 금 16일 17:30부터 마르코스 주의 청년동맹 주최 하여 " 박주마구만 및 일본 계곡주의의 조선 침략저지 " 명목의 집회가 약 100여명 참가하여 당지 특공거의 이노계로 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동은 20:30부터 22:00까지 동공원으로부터 미미야 공원까지 예로 행진 예정이라 고함.

(일정, 복일, 정보)

동부기 1과	공 람	자 철	담 하	과 장	국 장	차 관 보	치 도	장 관
						KJ		

장관실	의전실	국경국	외연원	청와대	경기원	문교부	조달청
차관실	아주국	방교국	대사	총리실	내무부	농수부	노동청
정책보	미국국	김문국	한계	국회	해무부	상공부	수산청
경과보	구아국	영사국		중경	법무부	보사부	교보라
기획실	통상국	총무과			국방부	문공부	건설부

담당	주부	과장
수	L	

부 의 무 부

종 별 : _____
 번 호 : JAW - 05309 일 시 : 161420
 수 신 : 장 관 참 조 (사본) : _____
 발 신 : 주 임 대 사

착신전보
원 본

1462 재이대사

227미연상하 이담

당지 배프공 그들의 자립 "재일 한국 학생 동맹 조국 유학생 구제 위원회" 소속
 남녀 학생 약 40명이 곧 16일 16:55경부터 약 20분간 방관함으로써 현재 광주
 교토소에서 복역중인 서문식 여 대안 조문여 대안 양희운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양희운을 놓고 돌아갔음.

(일 경-복 일, 영 민, 정 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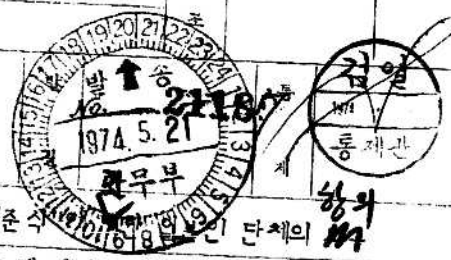
동무	공	XX	관	외	국	차	관
1과	람	5	장	상	장	관	관
	현						

 17 26

장관실	의전실	국경국	외연원	정외대	경기원	문교부	조달청	담당 주무 과장
차관실	야주국	0	대사	총리실	대무부	농수부	노동청	
선차부	미주국		총대	국회	재무부	상공부	수산청	
경차부	구아국			중정	법무부	보사부	코트라	
기획실	통상국				국방부	문공부	건설부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각번호	(전화번호)	전 결 규 정 도 량 영사국장 전 결 사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74. 5. 20.		
비준연한			
보급기관	과 장	<i>기</i>	
기안책임자	김항경		
경유	법무부장관		
수신			
참조			
제목	간접 협의로 복역중인 '서준식'의		
<p>1. 주오오사카 총영사 보고에 의하면 74. 5. 15. 현지 "서순형제를 구하는 회"등 7개 단체 대표 13명이 현지 간접 협의로 광주 교도소 영서 복역중인 서준식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질문을 등 공관에 제출하고 5. 22. 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p> <p>2. 별첨 주오오사카 총영사의 보고를 검토하여 지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참 부: 2, 54-0515 전문 사본 1부. 끝.</p>			
			정서
			관인
			반송



0201-1-8A (국)
1969. 11. 10 승인

190mm x 265mm (복합인쇄용지 100g/m²)
포 단 량 (1,000,000매 인쇄)

주 일 대 사 관

일련 725- 3/28

1974. 5. 17.

수신 : 장 관

참조 : 악주동장, 영사국장, 정보문화국장

제목 : "항의문" 송부



원 : JAW-05309 (공안필한)

연호트 보도한 바 있는 당지 "베트남" 그룹의 자칭 "제일한국학생동맹
부국유학생구제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74. 5. 16. 당관 경비실에 놓고 간
"서준근의 코뮌에 대한 항의문"을 필첩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 : 전기 "항의문" 사본 각 1부. 같.

주 일 대 사 관



徐俊植君에의

抄問에 대한 抗議文

韓國政府當局에

지난 五月三日 光州 橋導所
에서、曰本國國會議員

西村 閔一氏가 現在 服役

中인 在曰同胞 母國留

學生 徐俊植君에 面會

후에 同君에 대한 橋導所

當局의 抄問事實이 명백

히 되어 있다.

이것이 同胞에게서 생긴 徐兄弟
對峙의 移開事實이 명백
히 되어 있다.

徐兄弟事件發生以來

我々は 在日同胞 對峙 發生以來

그들의 生命 및 身體의

安全에 큰 關心을 가지고 온

우리들은 이러한 對峙의

間 非人道的 對峙에 對하

이 對은 분적을 減할 수

없으며 여기에 對하여

意思를 表明한다.

10

우리들은 民族의 對峙在日

同胞의 一員인 徐兄弟에

說明書 說明書

○ 國民大會 民族의 地位 在日
同胞의 一員인 徐兄弟의
權利의 保障은 國民大會
의 決議의 配慮가 保障의
이야한바는 것은 이리가
國民大會의 決議가 本國政府
當局에 要求한바다.

그러나 △ 此間 事實의
判明은 現實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요구가 모두다
無視되었던 것은 意味하는
徐兄弟가 喪하고 있는 狀態
가 想像을 돕는 바는 非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본질이다.

MEMO

1974 . 5 . 24 .

서준식에 대한 고문에 항의하는 성명 (5.24 아사히 조간)

1. 5. 23. 각 당 국회의원과 문화인 등은 중의원 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서준에 대한 고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
 2. 자민, 사회, 공산, 공명, 민사 각 당의원 220명이 동 성명에 서명하였고, 75명의 학자 문화인들이 고문에 강력히 항의함.
- * 서준식 검거 이유
- (1) 재일 교포 한국 유학생
 - (2) 71. 3. 7. 간첩혐의로 검거되어 현재 광주 형무소에서 복역중임.

15

외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북도 의 무 부

종 별 : _____ 작 신 전 보
 번 호 : ~~1000~~ - 06437 일 시 : 241010 원 본
 수 신 : 학 관 참 조 (사본) : _____
 발 신 : 주 일 대 사

1. 금 24일 아사리 조간은 지난번 사회당의 "니시무라 간니찌" 의원 광주시 광주형무소에 수용되고 있는 서문신과의 면회에서 동인이 형무소내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각하였으며, 작 23일에는 각당 국회의원과 문화인등이 중의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서군에대한 고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고 보도 함.
2. 이날 발표된 성명은 자민, 사회, 공산, 공명, 민사 각당의원 220인 이상이 서명한것과 75명의 학자, 문화인등의 호소 및 "서군 형제를 지키는 문화참관자와 독자의회" 의 호소로서, 고문에 강력 항의함과 동시에 "사상, 신조를 이유로 고문이나 학대를 행하는것은 인도 및 인격존중 정신에의 도전" 이라고 고문의 즉시 종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일정 - 복일, 경보) *71.3.7 검거.
 광주에서 북역중
 재일교포 투학성으로
 간첩용의.

m.R.22

16	동북아 1과	공 램	74년 5월 23일	담 당	과 장	국 장	차 관 보	차 관	장 관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장관실	의전실	국경국	외연원	정의대	성기원	문교부	조달청		
차관실	아주국	방교국	대사	총리실	내무부	농수부	노동청	담 당	주 무
성카르	미주국	경문국	중 제	국 회	재무부	상공부	수산청	[Handwritten]	과 장
경카르	구아국	일사국		중 정	법무부	보사부	코트라		
기록실	통상국	총무과			국방부	문공부	건설부		

~ 김봉정

1. 공장에 일본 등본

2. 등감 (아쿠쿠 병로)

교정 725 (70-2810) 1974. 5. 28.

수신 외무부장관

제목 간접 해외로 복역중인 서준식에 관한 일본인 단체의 항의

1. 영민 74-27757 (74. 5. 27) 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부 산마주 오사카 총영사에게 일본인 단체 대표자들의 서준식에 대한 질문 내용에 관한 당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질문 요 지	당 부 의 견
가. 서준식에 대한 고문 학대 행위를 증지하는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겠는가	가. (1) 서준식에 대한 고문 또는 학대한 사실이 없음. (2) 74.5.2.그 모 오기순이 면회를 통하여 서준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바 있음.
나. 동인에 대한 학대 행위의 책임소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규명하겠는가	나. 학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따라서 책임문제가 있을수 없음.

공	담	관	장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제 목	담 부 의 견
<p>학. 동 의 회 의 회 의 회, 책 입 관 관 점 수, 사 신 의 자 유 양 령, 충 분 한 의 표 적 주 키 영 의 사 령 의 관 령 양 으 로 약 령 게 보 증 하 겠 단 가</p>	<p>타. (1) 행 령 법 규 정 에 위 하 이 켜 리 할 것 임. (2) 서 준 식 은 현 재 건 강 하 며 학 등 이 상 이 없 음.</p>

3.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사실에 대하여

보 도 요 지	담 부 의 견
<p>가. 7.4.5.3.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일본 참의원 의원 "니시무라 감기찌"가 서 준식과 면회시 동인으로 투박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기사가 일본 "아사히" 신문 에 보도됨.</p>	<p>가. 고문 또는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 참의원 니시무라 감기찌 의원도 접견을 통하여 서준식의 건강을 확인 하였으며 접견 후 동 의 원 이 광 주 교 도 소 장 에 게 보 국 (分) 에 와 서 는 그 보 국 의 법 에 따 라 야 하 고 또 한 나 이 가 어 린 학 생 이 라 서 범 죄 는 일 이 라 고 말 한 바 있 었 음. 따 라 서 본 보 도 는 허 위 사 실 을 그 태 로 인 용 보 도 한 것 임.</p>

끝.

부 부 부 장



외무부

번호 WOS-0554 호: 2/1115

발신전보

수신처: 주 오모시카 총영사
발신처: 장관 관

대: 080-0515

대호 "서승 형제를 구하는 회"등 단체대표가 귀관에 제출한
질문에 관하여, 하기와 같은 관계부처 ~~장관~~ 입장을 통보하니, 참고 바람.

1. 서준식을 고문 또는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74. 5. 2. 모친
오기순이 면회를 통하여 서준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음.
2. 서준식에 대한 면회, 차입금품 접수, 서신의 자유왕래, 충분한
의료적 조치 등의 실행은 행형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할 것임.

(영민)

양 고 재 정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김영민					

발신시간: *

1P

수신처	주 오모시카 총영사
발신처	

외무부	장관
	김영민

102